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부모가 많은 오누이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1동에 가면 누구에게서나 한 오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올해 15살, 13살인 그대들의 이름은 리혁일, 리영연이다.

어느 애틍처럼 웃음도 많고 노래도 많으며 꿈도 많은 혁일과 영연이를 보며 사람들은 그대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부모 없는 그대들에게서 한점 그들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아버지를 잃은 오누이는 두 해전에는 어머니마저 잃게 되었다.

혁일과 영연이는 하업없이 눈물만 흘리었다. 그러나 그대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희망에 대해 미처 걱정할 사이도 없이 고마운 사람들이 편이 찾아왔던 것이다.

어린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겠는가,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살자고 진정 어린 목소리로 말하는 평천동사모스의 김정미녀성, 그대들을 데려가겠다는 고모와 고모부에게 나이가 적지 않은데 자기들에게 맡기라며 손목을 잡아끄는 이웃들...

혁일과 영연이네 집의 고교자는 모든 일이 온 마을의 관심사였다. 그런 속에 동의 일꾼들과 이웃들속에서는 오누이의 웃으며 침구류 등을 세탁해주는 어머니가 생기고 숙제검열을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의 연계에 합숙과 생활을 지도하는 어머니가 생겼으며 부엌살림을 도맡아 보살피는 어머니도 생기게 되었다.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동안고급중학교와 창덕학교의 교원들도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지 한달 남짓이 되던 어느날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 교원이 영연이를 찾아왔다.

몇달전 영연이가 다니는 평천구역 간성소학교에 성악 가수후비선발을 위하여 찾아왔을 때 인물품고 노래도 잘하는 그대를 선발했던 교원이었다.

영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교원은 말했다.

《영연아, 너는 말했지. 네가 가수가 되는것은 어머니의 소원이었다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너를 기다리고있



다. 함께 가자》

이렇게 되어 영연이는 소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에 입학하게 되었다.

혁일도 창덕학교에 입학하여 수학수제반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고마운 어머니조국은 부모를 잃은 오누이의 희망도 사라지게 해아려 활짝 꽃피워 준 것이었다.

그대들이 창덕학교와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으로 첫 등교를 하던 날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앞가슴에 꽃송이를 달고 집을 나서는 오누이를 이웃들이, 동사무소일꾼들과 너털원들이 학교에까지 따라나섰다.

영연이의 담임교원인 신은정선생은 그때 일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에는 영연이를 따라온 술한 사람들이 친척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남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정속에 혁일과 영연이는 훌륭한 교장에서 마음껏 재능의 노래를 펼치고있다.

창덕학교의 문화남선생은 《혁일이 우리 학교에 입학한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혁일이 하면은 학교가 알고있습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가 혁일이를 담당한 날 교장선생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교장선생은 새로 담당한 학급에 리혁일이란 애가 있지 않나. 그의 학습정형이 생활정형에 매일 알려달라고. 그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후날에야 문화남선생은 전종호교장선생이 왜서 학교의 수많은 교원들과 학생들

을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속에서 그렇게 혁일이를 두고 마음을 쓰는가를 알게 되었다.

혁일이가 감기에라도 걸릴새라, 학용품이 부족할새라 세심한 정을 기울이는 교장선생의 모범을 따라 온 학교가 그를 관심하였다.

남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혁일이가 등교할 때에도,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늘 한 손에 들고다니는 축구공에도 사연이 있다.

그 축구공은 문화남선생이 새 축구화와 함께 혁일에게 기증으로 준 것이었다.

웃장에 걸려있는 새옷들, 장에 가득차있는 학용품들, 사계절 신을 수 있게 신발장에 빼곡이 들어있는 신발들...

모두 이웃들과 고마운 사람들이 마련해준 것들이다.

올해 설날 오누이의 집에는 또 한명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평천짜장면집 책임자 리옥심녀성이 성의껏 준비한 음식을 안고 찾아온 것이었다.

명절이면 의례히 집에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특식을 해주는 것이례사이다. 그 마음으로 오누이를 위해 갖가지 특식을 해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혁일과 영연이, 온 동네, 온 학교의 사랑을 받는 오누이이다.

비록 부모를 잃은 오누이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사회의 버림을 받고 내던져졌을 이들이 피보다 진한 사랑과 불보다 뜨거운 정속에 한점 그늘없이 살고있다.

이런 고마운 제도, 고마운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는가.

본사기자 김준경

해외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든 공장

- 애국최종락피복공장을 찾아서 -

경련애국사이다공장, 애국전직물공장, 동대원에국전직물공장, 만경대에국직물공장... 해외동포상공인들의 애국적소행을 전하는 공장들이다.

문화국민들은 이 공장들의 이름을 들 때마다 해외에서도 어머니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애쓰는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의 마음을 새겨보곤 한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애국최종락피복공장에도 해외동포의 애국지성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장의 연혁사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로경희지배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공장은 애국적상공인이 최종락동포가 어머니조국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은 애국의 한마음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돐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기증한 공장이다.

사실 자신의 피땀으로 마련한 재부를 내놓는다는 것이 입사리 결심을 내릴 일은 아니었다.

더우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일본땅에서 살면서 일생을 다 바치다싶이 하여 한푼 두푼 어렵게 마련한 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나라없던 그 시절

과 건설력량을 친히 무어주시고 공장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공장의 명칭도 그의 이름을 달아 《애국최종락피복공장》으로 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들려주시었다. 그 사랑속에 공장은 주제81(1992)년 4월에 조업하였다.

공장주내에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는 최종락동포의 애국성을 평가하여 세운 총성비도 세워져있다.

비문에는 멀리 이북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숨쉬며 사회주의조국의 융성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하는 최종락동포의 뜨거운 총성비와 높은

애국적열의와 커다란 공로를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오늘날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수십 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생산방법과 선진가공방법도 받아들여면서 피복제품생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에서는 여러 생산기지도 현대적으로 새롭게 꾸리고 생산토대를 강화함으로써 달린옷과 니외의, 어린이옷, 승마복 등 생산품종수를 늘어나가고있다. 뿐만 아니라 재자원화사업을 주

심으로 틀어쥐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여러가지 부산물들로 작업복과 장갑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제품들도 생산해내고있다.

공장이 일떠선 초창기부터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리금남작업반장은 말하였다.

《이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문제에 그토록 심려하시며 사람의 특별명령서도 발령하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질 좋고 맵시있는 옷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본사기자 김진혁



북부의 교육현장을 가다

2019년 3월 10일 공화국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조국에 체류하는 여러 기회에 걸쳐 선거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깨달아만 있지만 그날도 나는 정권의 주인인 조국인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는가를 다시금 느꼈다.

돈에 의해 사람들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있다면 누구나 자국 주관기관 대의원으로 될수 있는 조국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는 선거장과 선거자들의 성실한 태도로 조국인민들은 또 한번 자기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었다.

이 나라의 어느 일터에서나 볼수 있는 소박한 근로자들이 자기자신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선거하고 명절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본 이방인들은 대변에 조선의 《인민문제》를 떠올리며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라 (1)

는 서방의 선전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는 또다시 확신했다.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비추는 것은 거울이다.》라고.

이날 내가 새롭게 확신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날 나는 TV로 선거에 참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을 뵈옵게 되었다.

그분께서 투표하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누구나 쉽게 공감을 느끼리라 생각된다.

정치인이겠는가, 경제인이겠는가, 군인이겠는가, 농민이겠는가.

그러나 경애하는 그이께서 몸소 선거장에 나오시어 투표하시고 만수무득이 되려면 다름아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이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나와 많이 친숙해진 대학이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실지 여러번 참관한 전적이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8년에 창립 70돐을 맞이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시었다.

이 대학에 대하여 앞서 많이 이야기하였지만 평양의 중심구역에 위치하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공화국에서 손꼽히는 종합대학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조선의 첫 종합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이다.

대학의 이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전 내각부수상이며 산업사업이었던 김책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창립당시 불과 몇개의 학부와 수십명의 교원들이 전부였던 대학은 오늘 수십개의 학부와 연구소들, 수많은 교원, 연구사력량을 가진 과학기술핵심기관을 키워내는

원종장, 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장성강화되었다.

대학의 창립과 강화발전에는 절세위인들의 업적이 겹겹을 깃들여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대학창립을 발기하시고 혁명적태도 명도하시어 1948년 9월 평양공업대학(전신)을 세워주시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교원, 연구사들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그 후 대학을 여러차례 현지지도 하시면서 나아가 갈 방향과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950년대말 대학에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이어오며 여러차례 나오시어 강력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2006년 새해 정초에도 완

공된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대학이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지대로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 더 높이 도약할데 대한 믿음을 주시었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속에서 지난 70년간 10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과 수많은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을 찾으신 그때로부터 얼마 안 있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이 대학을 찾으시었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내짚는 한결을한결에는 참으로 많은 뜻과 의미가 실린다.

다름아닌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선거장에 나오시어 대의원후보로 대학총장에 투표하신것은 과학교육중시론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이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재중동포 김영란

꼬마 《태권도선수》들이 자랑다



공화국의 유치원들에서 어린이들에게 민족무도인 태권도를 배우주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유치원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꾸준히 배우주어 나이 어린 태권도유급자들을 많이 키워내고있는 평천구역 미래유치원도 그런 유치원의 하나이다.

한창 용석을 부릴 5~6살나이의 어린이들이 국내에서 가장 나이 어린 태권도유급자들이라는 사실은 이곳을 찾은 우리의 호기심을 동하게 했다.

이곳 유치원의 김향숙원장은 유치원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우주면 어린이들의 육체적 발육과 성장에 좋은것은 물론 어려서부터 내 나라, 내 민족을 잘 알고 자기의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고 말하였다.

미래유치원에서는 교양원들부터 태권도를 직접시작해 배워 3급이상 또는 1단의 기술을 소유하도록 한데 기초하여 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배우주고있다.

이 나날 유치원에서는 참고도서 《유급자들을 위한 태권도배우기》와 다매체교육편집물 《어린이태권도배우기》, 어린이들이 음악에 맞추어 태권도동작을 숙련할수 있게 하는 《어린이태권도》

를 창작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나이 어린 태권도유급자들을 훌륭히 키워내고있는 김진옥교양원도 만나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이 된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된 김진옥교양원은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우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왔다.

지난 시기 유치원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을 위한 어린이의 교수방법을 창조한 그는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꾸준히 배워주고있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왜 배워야 하는가를 알기 쉽게 알려주고 팔동작, 발동작의 기초로부터 지르기, 막기를 비롯한 결합동작 그리고 친지를, 단군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워주고있었다.

그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유치원어린이들이 성격이 활발해지고 키도 부쩍 컸을뿐 아니라 운동능력과 집중력도 높아져 유치원교육과정안을 더 훌륭히 집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곳 유치원에서는 시, 구역의 유치원교양원들앞에서 태권도교수에서 발휘된 우수한 경험과 함께 태권도동작들을 보급하는 사업도 짜고 들고있다.

오늘도 미래유치원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민족무도의 기초기술을 배우도록 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이 세상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조선사회를 두고 인간사랑의 화현, 등재로운 공화국의 품에 삶의 맛을 내린 때로부터 30여년세월 나는 어린이들을 나의 왕으로 떠받들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설과도 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를 눈물겹게 체험하였다.

얼마나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이 땅에 꽃피었다.

전국의 육아리들과 애육원원아들을 찾아다니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소망도 다 헤아려주시는분은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모든것이 풍족한 때 받아안은 사랑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는 지출을 줄이기마련인데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수천수만금을 들여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지어주시리라



이 세상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조선사회를 두고 인간사랑의 화현, 등재로운 공화국의 품에 삶의 맛을 내린 때로부터 30여년세월 나는 어린이들을 나의 왕으로 떠받들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설과도 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를 눈물겹게 체험하였다.

얼마나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이 땅에 꽃피었다.

전국의 육아리들과 애육원원아들을 찾아다니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소망도 다 헤아려주시는분은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모든것이 풍족한 때 받아안은 사랑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는 지출을 줄이기마련인데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수천수만금을 들여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지어주시리라